

설 명절에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는 2021년. '새로움'과 '출발'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설레게 합니다. 그러나 새롭지 않고 작년과 동일하게, 출발이 아닌 이전의 연속이라 생각하니 2021년을 낙관적이기보다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복을 기원하기 보다 어떻게 해서든 이 시간을 버티자 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을 것은 결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좋은 것으로 아낌 없이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더욱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식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목 도 다같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램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느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1~2)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작년 한 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다같이
기쁨으로 찬양 362장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기 도 가족 중에서 다같이

말씀나눔 “복 있는 사람 : 주께 의지하는 자” 인도자
시편 84:9~12(구약 p.865)

축복과 비전나눔 온 가족이 다함께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 새해 비전을 말하고
집안 어른들은 그 비전들을 듣고 기도해줍니다)

찬 송 391장(통일찬송가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다같이
기쁨으로 찬양 77장 「나의 맘 속에 온전히」

마 무 리 주기도문 다같이

복 있는 사람 : 주께 의지하는 자

시편 84:9~12(구약 p.865)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설’은 이전과 많이 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명절을 앞둔 사회적인 분위기도 예전과 다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덕담을 나누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세배를 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알다시피 코로나19라는 현 상황 때문입니다. 작년은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0년을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으로 생각하기보다 탄식과 고통의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역시 작년과 동일하게 힘들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해 인사인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를 건넬 때, 올 한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가 끝나야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끝나고 좋은 결과가 있을 때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놀라운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분입니다. (9절)

9절에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워 위임할 때, 관유라는 기름을 그 머리위에 붓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자를 임의로 정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으신 자’는 좁은 의미로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킨다 라고 볼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오늘 저와 우리 식구 모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왕,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주시고 보살피 주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 생명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11절)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해요 방패요 또한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양은 모든 만물에 빛과 열을 통하여 생명을 공급합니다. 방패는 적의 공격 가운데 생명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해요 방패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은혜와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영화는 세상이 추구하는 찬란함, 풍요함이 아닙니다.

에스겔 1장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지개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무미건조한 표현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위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와 영광’이 곧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시적이지 유한한 ‘영화’가 아니라,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고귀하게 여기시고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서두에서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어떠한 자가 주를 의지하는 자일까요?

첫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10절)

10절에서 시인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시온을 떠나 쫓기는 신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자신의 안녕이나 예전에 누렸던 형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너무나 염원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단순히 건축되어진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성전이라고 하십니다.(요 2:21)

작년 한해,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안아주심 본당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제한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비록 본문의 시인처럼 마음껏 주의 전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이며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둘째.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11절)

11절에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여기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정직히’보다는 ‘완전한’이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당대에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은 노아가 바로 ‘정직한’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면전에 두고(Coram Deo),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이루는 삶이 ‘정직한 삶’이요 ‘완전한 삶’입니다. 내가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애쓰는 것.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 뒷면으로